

# 제16차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포럼 참가보고서

## The 16th ARCASIA FORUM

베트남, 다낭 2011. 8. 15 - 20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

### 1. 참가 배경 및 개요

#### 1.1 아시아건축사협의회 개요

##### 1.1.1 배경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hitects Regional Council of ASIA, ARCASIA)는 처음 1967년 뉴델리에서 개최된 CAA(Commonwealth Association Architects, 영연방건축사연합회)에서 논의가 되어 1970년에 6개국으로 시작이 되었다. 지금은 아시아 지역의 17개국이 회원국이 되어 명실공히 아시아 건축을 대표하는 연합단체이다. 우리는 1985년에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1999년과 2008년 아카시아 대회를 서울과 부산에 각각 유치하고 2007-2008년의 회장(이근창)을 배출하는 등 주요 국가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 1.1.2 설립 목표

아시아 각국의 건축을 대표하는 단체의 모임으로서의 아카시아는 건축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협회 차원에서 협조를 하며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증진시키고, 각국의 건축실무 및 교육을 국제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1.2 제16차 아카시아 포럼

##### 1.2.1 행사 개요

아카시아 행사는 매년 개최를 하되 한 해는 포럼 형식(ARCASIA Forum)으로 한해는 건축사대회의 형식(ARCASIA Congress)으로 개최된다. 건축사대회가 있는 해에는 학생잼버리를 동시에 개최하여 각국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초청하고 국제워크숍 등을 열어 학생 간의 국제 교류와 건축사들의 행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규모가 큰 행사인 반면 포럼이 있는 해에는 규모는 작지만 아카시아건축상을 시행하여 완공된 건축물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선발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이사회와 포럼으로 구성되며,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제32차 아카시아 이사회(ARCASIA Council Meeting)와 위원회를 열고 18일과 19일의 양일간에는 제16차 아카시아 포럼을 개최하였다.

주최자는 베트남건축사협회(Vietnam Association of Architects, VAA)로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오랜 준비 기간에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행사 장소는 베트남의 증양부에 위치한 다낭시의 푸라마 리조트(Furama Resort)로서 대부분의 참가자가 이 호텔에 묵으면서 부속시설인 회의실과 대회의장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였다.

##### 1.2.2 참가 개요

이번 행사에는 최근 들어 아카시아 회원 단체에서 가장 많은 임원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협회에서는 강성의 회장, 이근창 아카시아 고문, 김성민 국제위원장, 조인숙 국제위원 및 전성호 국제위원 등 5명이 참석하였고, UIA 총회 유치를 위해 UIA유치위원회의 일원으로 김종성 유치위원장, 한중를 유치집행위원(한국건축가협회), 정재욱 유치실무위원(대한건축학회)과 함께 신춘규 국제담당 이사가 유치실무위원(대한건축사협회)으로 참석하고, 한국건축단체연합(FKA)의 이상림 회장과 한국건축가협회의 이광만 수석부회장, 박재유 기획위원장이 추가로 합류하여 총 12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하여 아카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UIA 유치를 위한 열정을 보여 주었다.

### 2. 행사별 활동내용

#### 2.1 제32차 아카시아 이사회

이사회는 8월 16일과 17일에 푸라마 리조트 대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현 회장단과 고문단, 그리고 17개국의 회원국 공식대표단 2명씩 등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각 종 의제를 토론하였다. 우리 협회는 공식대표로 강성의 회장과 김성민 국제위원장이 참석을 하였고 이근창 전임 아

카시아 회장이 아카시아 고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1) 개회식 : 개회 선언 및 환영사

2) 이사회 : 안건 상정, 직전 회의록 승인, 재무 보고, 회장 및 지역 부회장 보고, 각 국 단체장이 친환경 건축, 건축 실무 및 교육에 대한 자국의 최근 관심사에 대해 짧게 보고 하였다.

3) 아카시아 사업 : 도쿄 UIA 세계대회의 아카시아 전시관 준비, 아카시아에서 출간한 "아카시아 건축유산" 배포, 웹사이트 운영, 아카시아 본부 건립 (2008년 부산 아카시아 대회에서 시작된 부산에 아카시아 본부를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성민 국제위원장이 그간의 과정과 문제점 및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는 건립 방안에 대하여 보고), 2개의 새 위원회 설립(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성원이 되어 총괄 및 조정 기능을 하는 Inter-Committee와 장애인 편의공간, 역사적 보존, 사회환경 개선 및 재난 방지에 대한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4) 아카시아 정보 공유 및 건축상 :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Architecture Asia」 기간지의 온라인 버전 소개, 아카시아와 타 지역건축사협회 간의 양해각서 체결(AUA/아프리카, ACE/유럽, MASA/유라시아), 2011-2012 아카시아 건축상 발표(이번에 한국에서는 조인숙 건축사와 이상림 건축사가 골드메달 수상), 회칙 개정, 신입 회원단체 승인(이번 이사회에서는 우리 협회와 작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라오스건축사 구조기술인협회(ALACE)를 18번째 회원 단체로 승인) 등을 토의하였다.

5) 아카시아 대회 및 포럼의 장래 계획 및 평가 : 2012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카시아 대회에 대한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의 보고, 2013년에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아카시아 포럼에 대한 보고(홍콩 건축사협회에서 2017 아카시아 포럼의 개최를 반려했고 네팔건축사협회에서 카트만두에 개최를 희망하여 개최지 변경을 승인) 및 토의가 있었다.

6) 위원회 보고 및 승인 : 4개 위원회인 친환경건축위원회, 건축실무위원회, 건축교육위원회 및 고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하였다.

7) 회장 선거 : 직전 회장이 2013-2014 아카시아 회장 선거를 주관하여 2명의 후보자인 말레이시아건축사협회의 Tan Pei Ing과 스리랑카 건축사협회의 Lalith de Silva의 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차이로 Tan Pei Ing 후보가 당선되었다.

## 2.2 위원회 활동

2.2.1 교육위원회(ACAE,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

- 회의 일시 : 2011년 8월 16일 13:30 ~ 19:00

(TLC 보충회의 : Dr. Chalay, 조인숙 국제위원 8월 17일 10:00 ~

11:30)

- 장소 : 베트남 다낭 Furama Resort Convention Center "Non Nuoc 1&2"

- 참석자 : 위원장 (임기 2011-2012) Prof. Abu Sayeed M. Ahmed(방글라데시, IAB), 부위원장 Dr. Chalay Kunawong(태국, ASA), 서기 Dr. Walaiporn Nakapan(태국, ASA) 및 17개국 대표와 참관국 라오스(ALACE) 대표가 참석하여 총 26명의 출석으로 진행. 참고로 부위원장 Bernard Gomez(스리랑카, SLIA) 및 참석 예정이었던 미얀마 대표가 참석하지 못하였다.

- 한국 대표: 조인숙 국제위원

- 참석자 착석 후 성원되었음을 서기가 선포하고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한 후 환영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 각자의 인사소개가 있었다.

- 주요 안건 및 협의 사항

1) 2010년 26일 라호르에서의 31차 교육위원회 회의록(Minutes of the 31th ACAE)을 서기(書記) Dr. Walaiporn Nakapan이 PPT 발표하고 경미한 철자수정을 거쳐서 참석위원들이 제31차 교육위원회 회의록으로 정식 채택하였다.

2) 2011년 안건 및 협의사항(Agenda)을 서기가 PPT 발표를 했고 참석위원들과 협의하여 약간 수정을 해서 진행하기로 하고 각국 연례활동 보고(Country Report)를 한 후 단체 사진을 찍고 속회하였다.

3) 각국 연례활동 보고(Country Report)는 2011년부터는 인쇄물을 준비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8월 8일까지 서기 및 의장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후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사전에 공지되었다. 결과 12개국이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올렸고 회의석상에서 17개국의 각국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예년과는 달리 올해의 교육위원회 보고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할 것과 별도의 인쇄물을 준비하지 말라는 사전요청이 있었다.

1. 건축학교 개요(Architectural School Program)

2. 건축교육의 주요 사안(Key Issues in Architectural Education)

3. 계속교육(CPD PROGRAM)

4. 등록 및 면허 요건(Registration and License Requirement)

5. 학생 교환의 잠재력(Potential for Student Exchange Program)

6. 인증원 및 인증된 학교 목록(Accreditation body and its status, Name and e-mail address of all accredited schools)

7. 학생 실무수련에 관한 상황(Student Internship Program Condition)

8. 아시아 건축학대학 핸드북에 기초한 건축대학 목록(University and Contact List => refer to Handbook of Asian Architectural School)

9. 장래 계획(Future Plans)

10. 기타사항(Other Important Issue)

대한건축사협회(KIRA)는 대한민국 전반적인 건축교육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회의 협조로 건축교육 및 계속교육 등에 관해 보고서를 구성해서 발표하였다. 인증원의 활

동상황 및 한국건축학교육 협의회에서 만든 2010년 전국대학건축학 교육 백서 중 관련내용 등을 다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속교육 및 친환경아카데미에 대해 보고하였다.

(ACAE 각국보고서는 다음 웹페이지를 참고 : [http://www.arcasia.org/meet/meet\\_12\\_3.asp?BBSNAME=TB\\_BBS\\_ARCASCIA\\_3\\_7](http://www.arcasia.org/meet/meet_12_3.asp?BBSNAME=TB_BBS_ARCASCIA_3_7))

4) 2010년 라호르 학생잼버리(Student Jamboree 2010 in Lahore)에 대해 S. Akeel Bilgrami(파키스탄, IAP)가 결과보고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학생잼버리 설계경기(주제 : Children Resource Center)에 17개 작품이 출품되었고 공동1등 수상작을 내었다는 것과 학생잼버리 대회는 "건축의 역동성, 아시아의 혼(Dynamism in Architecture, The Asian Spirit)"을 주제로 했으며 성곽도시인 라호르의 구도심을 탐방하고 참가학생들의 발표가 있었고 퀴즈경연대회도 했다고 보고한 후 7분짜리 동영상 보고서를 상영하였다.

결과보고와 함께 제안사항으로 동영상 보고서는 ARCASCIA 웹사이트에 올려야하며 Prof. S. Akeel Bilgrami는 학생잼버리 매뉴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2012년 발리에서의 학생잼버리는 사전에 회원국에 미리 알려져 학생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것, 그리고 개최국으로부터 학생잼버리 행사를 의뢰받은 건축사들은 행사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5) 2012년 발리 학생잼버리(Student Jamboree 2012 in Bali) 계획안을 Ridwan Kunia(인도네시아 IA)가 발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ACA-15 대회 및 학생잼버리 조직위원장은 Gede Arista Gunawan이며 학생잼버리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Udayana University 건축학과장이고 장소는 발리, Sanur의 Werdha Pura Complex이다.

2012년 학생잼버리 주제는 ACA-15의 주제인 "모더니즘 챌린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아시아의 도시와 건축유산(A Modernism Challenge : Asian cities and Architecture Heritage in A new Paradigm)"을 참고하고자 한다면 잠정적인 주제는 "지역 환경 내에서의 아시아적 맥락: 아시아건축과 문화유산에서의 문제점(Asian Context in Local Setting : Challenges in Asian Architecture and Cultural Heritage)"이며, 잠정적 행사구성은 참가학생들의 발표 및 전시, 워크숍, 워크숍 발표, 공개강의 및 자유행사 등으로 기획하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알리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부주제로 1. 토속건축: 원리와 특징(Vernacular Architecture : principles and character); 2. 생태건축: 시공과 재료(Eco-architecture : construction and material); 3. 아시아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Asia); 4. 건축유산 : 유형 및 무형(Building heritage: the tangible and intangible); 5. 건축표현으로 아시아의 정체성 추구하기(In search for Asian Identity in Architectural Representation) 등에 대해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몇 가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생잼버리 대회가 주관하는 학생잼버리 설계경기는 말레이시아(PAM)가 주최하는 학생설계경기과 겹치면 안 된다는 것과 발리에서 학생설계경기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Dr. Chalay Kunawong이

학생잼버리와 학생설계경기에 대해 재정리 하였다.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CIA)가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한 해는 잼버리를 하고 한 해는 설계경기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회(Congress)를 여는 짝수 해는 학생잼버리(Student Jamboree)를 하고, 포럼(Forum)을 여는 홀수 해는 학생설계경기(Student Competition)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동의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회원국이 학생설계경기를 진행하기로 하는 것과 "아시아건축사협의회 학생설계경기(ARCASCIA Student Competition)"로 명명하는 것을 다음날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학생잼버리 설계경기'란 대회 개최국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을 지었다.

6) 교육위원회 계속사업(Ongoing Project of ACAE)에 대해서 보고 및 의의 이어졌다. 우선 아시아건축학대학 핸드북과 회원국 연례보고서에 대해서 Dr. Chalay Kunawong의 Google Spread Sheet(이하 GSS) 설명이 있었다. 핸드북의 진행사항과 회원국 연례보고서 진행사항을 GSS 웹 문서로 작성한 것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회원국 연례보고서의 경우 서면작성은 해마다 작성해서 인쇄하지만 GSS의 매트릭스 포맷(matrix format)으로 작성하면 주요한 사항을 웹에 올린 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과 아시아건축학대학 핸드북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용을 항상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핸드북을 출판하지는 극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인쇄물로 출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전자북으로 할 것이 제안되었다(ASA).

핸드북 논의의 결의사항인 자료가 80%이상 보완되면 한 번 정도 아주 경제적인 포맷으로 인쇄할 수도 있겠다는 것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웹사이트 상에서 웹문서로 출간될 수도 있다(다만 각 학교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차차 보완하기로 하고 타일랜드(ASA)가 계속해서 담당하기로 한다는 내용에 참석자들이 동의하였다.

이어서 Nela De Zoysa(스리랑카, SLIA)의 Time Line Chart(TLC) -2nd Edition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출간을 후원하기로 했던 회사가 이유 없이 갑자기 후원을 안 하기로 해서 온라인 출간계획을 해야 하는데 편집자나 웹디자이너를 찾아야 한다는 것과 예산은 약 미화 2,500달러라는 점 및 다음 온라인 편집자의 조건에 대해 언급하였다: 소유권 (Hosting and posting ownership); 저작권 해결(Country must make free of copyright); 아시아건축사협의회 자산(Become property of ARCASCIA); 웹문서 출판(Publication to be under web edition); 웹사이트와 연결(Link of ARCASCIA web); 스리랑카가 진행의 모델이 되겠다(Make SLIA model of process); 출판을 위한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 to decide on final material to be published); 저작권(Copyright issues); 저작권 관련 법적 조치(A legal body to deal with the copyright issues); 후원자(Look for sponsor); 웹사이트에 스폰서 로고 게재(To have the Logo of the sponsor on the website) 등이다.

이에 대한 의결사항은 최초의 버전이 대한건축사협회(KIRA) 웹마스터에게 전달되어서 KIRA는 그 내용을 각 회원국이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포맷 가이드라인(the format guideline)을 수립해야 하며 편집자는 내용을 가이드라인(content guideline)을 만들어 회원국에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고로 최종버전의 CD를 우리협회 신춘규 이사가 받아와서 우리협회 웹마스터와 협의 중이며 CD의 내용은 조인숙 건축사가 해독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신춘규 이사에게 제공하였다)

7) 버추얼 아시아건축대학(Virtual Asian School of Architecture)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Bernard Gomez(스리랑카 SLIA) 와 Dr. Kemas Ridwan(인도네시아, IA)에 의해 논의사항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다. 스리랑카 대표는 Dr. Kemas Ridwan의 자문을 받아서 4개월 이내에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하고 담당인 Bernard Gomez의 불참으로 이 인건은 다음해에 논의하기로 참석자들이 의결하였다.

8) 아시아건축사협회의 학생설계경기(ARCASIA Student Competition)는 "생태-휴양지(Eco-resort)"라는 주제로 말레이시아(PAM)가 주도하여 진행했으나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만 제출하였다. 그나마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것이 ARCASIA 설계경기로 인정되지 못했고 말레이시아는 다른 학생 설계경기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ARCASIA 회장이 보류했다고 보고하였다(PAM).

9) 향후 계획(The way forward)에 대해 위원장인 Dr. Abu Sayeed의 발표는: 교육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Objective of ACAE); 제기된 다양한 의문(Questions asked); 전략(the Strategy); 단기 (Short-term, 1 year), 중기 (mid-term, 5 years) 및 장기(longterm, 10 years)의 장래계획에 대한 제안 (the Proposition of Road-map)과 논의가 있었다. 교육위원회의 목적으로는 각국 교육프로그램을 자문하고 리드하며; 코디네이트 하고; 회원 단체를 협조하며; 건축학교에 도움을 주고; 학생교류를 증진시키며; 각국을 대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되돌아보았다. 아울러 미래의 교육위원회와 미래 세대를 대표한다는 "ARCASIA의 혼(the Spirit of ARCASIA)"에 대해 언급했다. 교육위원회의 중요성은 연속성(continuity)과 연결성(connection)이라는 의견이 있었다(prof. S. Akeel Bilgrami).

1개년 단기계획으로는; 수정 보완된 TLC의 전자출판; 아시아 건축대학 핸드북출판(인쇄 및 웹문서); 학생멤버기간 중 정례적인 "학생 아이디어 설계경기" 계획; 현 아카시아 건축상(ARCASIA Award)에 학술논문 또는 전문연구논문 분야를 추가할 것을 제안; 각국 연례보고서를 웹의 매트릭스 포맷에 올리고 인쇄물 없는 회의할 것 등이다.

5개년 중기계획으로는; 회원국 간의 국경 없는 인터넷 교류 프로그램 구축; 회원국 학생들의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능한 상호교류 웹 페이지 구축; 연례 우수디자인학생상을 알리기 위해 ARCASIA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다

10개년 장기계획으로는 "아시아건축사협회의 건축사(ARCASIA Architect)"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인증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의 설립; 버추얼 아시아건축대학(Virtual Asian School of Architecture); 웹 문서로 된 "계간 ARCASIA 학생 E-journal" 발간 등이다.

이런 로드맵에 대해서 위원장은 각국이 적어도 한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담당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학생교류에 비자 문제 등이 제기(IA)되자 Dr. Chalay(ASA)가 각국 연례보고서 내용의 일부이므로 각국은 Google Spread sheet를 채워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류시 학년 차에 관한 이슈

가 제기(IA)되었으나 각 학교가 다른 체계를 운영하므로 각 학교의 웹사이트를 참조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필리핀(UAP)이 학생 인터넷 프로그램을 위한 MOU에 대해 요청을 하였다. 태국(ASA)은 이미 스리랑카(SLIA), 방글라데시(IA)와 맺고 있으므로 각 회원협회에 전달하여 같은 양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고 참석자 모두 동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ASA가 주관할 온라인상의 ARCASIA/ACAE 저널에 대한 계획을 장기계획에 넣자는 데 동의하였다.

ASA는 또한 "아카시아 학술 및 연구 저널(ARCASIA Academic and Research Journal)"을 제안 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열람용(peer reviewed)이며 온라인출판(online publication)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ASA와 인도(IA)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초안을 만들어 올케부터라도 착수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문제는 이사회에 수락을 얻어오면 할 것으로 모두 이해하였고 회의는 18:20분에 마쳤다.

10) 2011년 8월 17일 10:00 Time Line Chart 및 핸드북에 관해서 부위원장인 Dr. Chalay Kunawong, Nela de Zoysa(SLIA) 및 조인숙(KIRA)은 별도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Nela는 참석하지 않았다. 협의 내용은 인쇄물로 출판하는 것은 출판과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자료가 되므로 웹 베이스로 하는 의견에 동의했고 그래야만 질적으로는 더 좋게 내용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KIRA에 요청사항은 웹마스터와 협의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달라는 것이었다. 웹에 올리는 포맷의 가이드라인과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회원국에 보내야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하였다. 당일 추가논의는 위원장과 서기가 이사회보고서 작성을 하는 장소에서 동시에 몇 가지를 확인하면서 진행되었고 11시 30분쯤 회의를 마쳤다.

-기타

십 년이 넘는 긴 시간의 공백을 안고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을 빼놓지 않고 전달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으나 서기 Dr. Walaipom의 도움으로 참석자 명단 및 개략 논의 내용의 초안을 받을 수 있어서 필자가 메모한 것과 대조해가면서 보고서를 썼다. 아쉬운 것은 전년도 의 자세한 사항 등이 좀 더 객관화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ACAE 보고서 작성자 : 조인숙)

2.2.2 실무위원회(ACPP, ARCASIA Committee on Professional Practice)

- 회의 일시 : 2011년 8월 16일 오후 1:30 ~ 6:00
- 참석자 : 위원장 Balvir Burma(인도) 외 각 국 대표 23 명
- 한국 대표 : 신춘규 이사
- 주요 안건 및 협의 사항

1) SEARCH(Students-Architects for Respect to Community & Humanity)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장이 보고 :

지난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UIA 회의에서 아카시아의 3개 분과위원장의 합동회의를 통해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동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2) WTO/GATT, APEC, ASEAN에 대한 최신 동향보고(Esa Mohamed, 말레이시아)

- UIA의 정책은 해당 건축사가 호스트국가에서 실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국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호스트국가의 건축사와 협업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WTO/GATS에서의 요구조건은 거주외무 조항을 삭제한 자유무역의 틀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효성에서 문제가 있고 실제 진척이 없다.

- 지금 말레이시아의 경우 APEC 건축사제도와 아세안 건축사제도에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아세안의 경우는 UIA의 권장안에 따라 시행중이다.

아세안 건축사제도의 내용은 <www.aseanarchitectcouncil.org>에서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으며 각국 간 MRA는 동등한 조건에서 완전한 상호인증이 될 때까지의 임시 조건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 3) UIA 계속교육 프로그램 권장에 대한 보고

- UIA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코어디네이터인 파비안이 UIA CPD 프로그램을 지난 7월23일 서신으로 아카시아에 권장하였다.

- 앞으로 아카시아와 UIA가 공동으로 CPD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정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UIA동경대회에서 26일 11시에 실무위원회의 PT가 있을 예정이다.

### 4) 각국 실무 변화 관련 보고

- 페이퍼리스 회의를 지향하는 이번회의에서 4개국만 각국 연례 활동보고서(Country Report)를 제출하였다.

- 특히 한국이 보고한 건축사보수기준의 조정연구, 건축물유지관리법의 제정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싱가포르의 경우는 최소보수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각국이 유사한 이유로 득과 점을 못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법을 통해 건축사들의 업무영역을 넓혀나가려는 협회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였다.

### 5) 기타사항

- 각국의 건축실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기로 한국대표가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서 필리핀의 Dinky가 구축해 놓은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www.arcasia-profprac.co.nr)

- 동경 UIA 대회에 참가하는 실무분과위원회 대표단은 26일 11시 UIA PPC의 PT후 같이 만나 필요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 2.2.3 친환경위원회(ACGSB, ARCASIA Committee of Green and Sustainable Building)

- 회의일시 : 2011년 8월 17일 오전 8:30 ~ 12:00

- 참석자 : 위원장 Ashvin Kumar(싱가포르) 외 각국 대표 20명

- 한국 대표 : 전성호 위원, 조인숙 위원

- 주요 안건 및 협의 사항

Furma Resort Son Tra 회의실에서 개최된 친환경위원회는 Ashvin Kumar위원장(싱가포르건축사협회, SIA)이 주관하였으나 친환경 분야

권위자인 이와무라 가즈오 교수(일본, JIA)가 전체 주제에 관한 실무 발표를 진행 하였다.

특히 이와무라 가즈오 교수는 최근 아시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 기온에서 기인한 가뭄, 홍수, 지진, 쓰나미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해결책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마련이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다. 각 나라마다 다른 기후 및 지형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인하여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부분 동의 하였다.

각국에서 온 각국의 친환경 관련 현황을 발표한 후 Ashvin위원장은 아카시아 홈페이지에 친환경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페이지 개설을 제안했고 모두 이에 동참하고 실행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싱가포르에서 9월 친환경 관련 모임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7개국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다고 고지하였다. (일본, 한국은 불참)

## 2.3 기타 행사

### 2.3.1 우정의 밤(Friendship Night)

포럼의 마지막 날 만찬에서 열리는 "우정의 밤" 행사는 각국 대표단이 자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소개하는 흥겨운 축제이면서 자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UIA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대표단은 미리 20장의 UIA 홍보용 티셔츠를 주문해서 당일 11명의 대표단이 입고 9명의 베트남 자원봉사 여대생이 나머지 티셔츠를 같이 입고 출연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화합을 보여주고 미리 노래를 연습하여 "클레멘타인"을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로 열창하여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강성의 회장님의 하모니카 반주가 돋보인 행사였다. 자원봉사 대학생들에게는 우리 티셔츠가 큰 인기를 끌어서 대표단이 티셔츠를 벗어 주고 오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 2.3.2 건축기행

포럼이 끝난 다음 날의 건축 기행은 다낭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Hue"로서 1802년부터 1945년까지는 베트남(응우옌 왕조)의 수도였고 많은 역사적 기념물과 건축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 2.4 제16차 아카시아 포럼

포럼은 "21세기의 아시아 도시 : 그 경향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2일에 걸쳐 열렸으며 베트남건축사협회의 준비와 지원으로 많은 청중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행사로 개최되었다. 포럼은 3부로 진행되었다.

### 2.4.1 아시아 도시에 있어서 세계화와 도시화(1부)

Norman Foster 사무소의 영국 건축사 Richard Hawkin의 홍콩 사례에 대한 강연을 필두로 2011 일본 대지진의 경험에 대한 일본 건축사 Noriyuki Okabe의 강연과 국제적 활동 경험이 있는 베트남 건축사의 강연 등이 진행 되었다.

#### 2. 4. 2 아시아 현대 도시의 건축 경향(2부)

중국의 Zhu Wenyi, 인도네시아의 Andy Subijono, 프랑스 출신으로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Michel Cassages 등의 강연이 있었고 특히 대나무를 사용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잘 알려진 베트남 건축사 Vo Trong Nghia의 강연이 인상적이었다.

#### 2. 4. 3 아시아 현대 도시에 있어서 건축적, 도시적 정체성(3부)

3부에서는 주로 역사성과 지역성에 대하여 여러 나라의 건축사 및 예술가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아카시아의 원로 건축사인 파키스탄의 Syed Zaigham Jaffery가 파키스탄 건축 유적의 보존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여 눈길을 끌었다.

### 3. UIA 4지역 회의(UIA Region 4 Meeting)

- 회의일시 : 2011년 8월 15일 오후 2:00 ~ 3:45
- 참석자 : 회장, 4지역 부회장 및 각 국 대표 등 13 명
- 한국대표 : 김성민 위원장, 조인숙 위원, 전성호 위원
- 주요 안건 및 협의 사항

이번 아카시아 행사와는 무관하지만 UIA 4지역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여 아시아 각국의 UIA이사가 참석하기 편리하도록 배려하였다.

루이스 콕스 UIA회장이 배석하고 가스오 이와무라 UIA 4지역 부회장이 회의를 주관하였으며 4지역 이사 중에 에사 모하메드(말레이시아), 발비어 버마(인도)가 참석하였고 중국의 장 조우, 한국의 심재호 이사는 불참하였으나 해당 회원 단체에서 대신 참석하였으며 UIA 재무관 이고 이번 UIA 회장에 출마한 고 청 차(싱가포르)와 2012년 ARCASIA 대회를 유치하는 인도네시아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최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도쿄에서 열리는 "2011 UIA 세계건축대회"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이와무라 부회장이 설명하였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여 도쿄의 방사능 오염 정도를 수치화해서 보여 주는 등 외국 건축사의 참여가 세계대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아카시아 회원 단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중국은 300명, 한국은 200명, 싱가포르는 2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일본 측 조직위원회(Japan Organizing Board, JOB)의 준비 사항에 대한 자료는 모든 행사에 상세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본의 성향을 보여 주었으며 추후 서울에서 UIA 세계건축대회를 개최할 때 일본의 자료 및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4. UIA 2017 세계건축대회 서울유치 활동

UIA 2017을 유치하려는 후보도시 3개 중에 서울과 싱가포르가 아카시아 회원국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카시아 총회나 포럼에서의 과열된 유치 활동이 아카시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는 생각에서 회장 단에서는 회의 장소에서의 유치 활동 및 선물 증정 등을 삼가해 달라는 각별한 주의사항이 전달되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예년과 같은 일상적인 선물과 협회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UIA유치위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홍보물은 주요 인사 및 회원 단체의 대표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리셉션 및 만찬 등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 단체와 다각적으로 접촉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반응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유치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아카시아 활동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확고한 인맥을 형성한 우리 협회가 주축이 되어 확실한 지지세력 다지기에 주력하였다.

### 5. 맺는 말

아시아의 주요 17개국(금년부터는 라오스를 포함하여 18개국)의 건축사단체를 대표하는 아카시아(아시아건축사협의회)는 아시아의 약진에 따라 이제 국제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었으며, 주요 행사로서 홀수 년에 열리는 "아카시아 포럼"과 짝수 년에 열리는 "아카시아 대회"가 모두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참여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아카시아 활동이 너무 친교에 치우쳐 있고 원로 중심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현 George Kunihiro 회장(일본, JIA)의 젊은 리더십이 아카시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 처음 시도된 "Paperless Conference"는 주최측에서 회의 자료를 USB메모리에 담아서 배부하였고 각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회의장의 프로젝터에 의존하여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변화된 아카시아의 분위기를 대변하였다.

또한 2017 UIA 세계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지난 1년간의 유치 활동의 마지막 국제 행사였던 만큼 우리 협회가 주축이 되어 유치위원회의 이름 아래 3단체와 서울시가 일치단결하여 노력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는 2017 UIA 세계대회 유치라는 목적 이외에 건축계의 단결과 건축단체와 서울시의 협조라는 큰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카시아, UIA 등의 국제기구의 행사 유치 등에 보이는 집중된 관심에 비해 평상시 이런 국제기구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및 기여가 너무 미비한 것이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이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되었듯이 개발도상국에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제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단체가 되어야 하며, 2017 UIA 세계대회가 그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